



하나은행-경기·서울신보, 모바일 원스톱 보증부 대출개발 맞손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모바일 원스톱 보증부 대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 한중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국 새마을금고에 코로나 예방물품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대구원대새마을금고를 찾아 코로나19를 대비한 예방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부터 금고를 내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임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유학생 104명에 장학금
 부영그룹이 설립한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2020년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날 제 41차 이사회에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서 한국으로 유학,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38개 국가 총 104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약 4억15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부영그룹



우아한형제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50억 기금 조성
 (주)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1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 50%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부터), 제갈창교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MTS, 코로나 방역 소독제 중에 무료전달

12억 상당 긴급 구호품 지원

(주)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는(MST·대표 문웅식)는 '바이오크린액트' 천연 살균소독제를 한국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안휘성 등 중국의 성정부, 심양, 상하이, 대현 등 중국 시정부, 한국주중대사관, 주중 교민회들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병원, 공공기관·환자들의 방역을 위해 한화약12억원 상당의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MST는 "고통받는 이웃 국가 국민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송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전액 무료로 전달했다"며 "중국측은 감사장등 여러가지 형태의 고마움을 전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MST는 앞서 '바이오크린액트'가 세계 각 나라들의 FDA에서 허가 받은 수많은 살균소독제 중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시험성적서를 취득한 바 있다. 100% 천연물소재들로만 제조됐다. /이세경 기자 selee@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김다연 변호사의
 진정한 의사법

Q. 상법은 타인 명의로 유효하게 주식을 인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자는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서의 납입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명의를 대여한 자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진다. 실제 출자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인과 실제 출자자 중 누가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는가? 그리고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가?

A. 판례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는 주식인수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①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도 없고 이를 표시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출자자가 타인의 승

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출자를 이행했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인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인을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인과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인을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 출자자와 명의인 중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종래 실질설(실제 출자자)과 형식설(명의인)이 대립했다. 과거 판례는 명의인이 누구인가에 관계 없이 실제 출자자(실질주주)가 주주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제 출자자(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의개서를 한 명의인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따라서 ①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한 경우,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가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이상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일 실제 출자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명의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명의인이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회사는 명의인을 주주로 인정하더라도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주주권이 귀속되는데, 주주명부에도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명의인은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출자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법무법인 바른

500ml 생수병 170개 채운 '헌혈왕'

삼성SDI 조현수 프로
 누적 헌혈횟수 200회

삼성SDI에서 '명예대장'을 수여받은 헌혈왕이 나왔다. 삼성SDI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조현수 프로가 최근 헌혈 200회를 기록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대장'을 수여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고교시절부터 헌혈을 해 온 조프로의 누적 헌혈 횟수는 212회다. 성인 남성의 1회 헌혈량이 400ml인 점을 감안하면 조프로의 헌혈량은 약 85l에 달한다. 이는 500ml 생수병 170개를 채울 만큼의 양이다.

조 프로는 "헌혈은 건강한 사람만의 특권"이라며 "우연히 시작한 헌혈이었지만 제 피가 한 생명을 살리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뭔가 짜릿한



조현수 삼성SDI 프로가 헌혈의 집에서 200번째 헌혈을 하고 있다. /삼성SDI

기분이 들었다. 그 이후 '가치 있는 생활습관을 하나 만들자'고 다짐했고 헌혈이 삶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혈을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도 같이 들이기로

결심했다"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피를 나눠줄 수 없다. 헌혈을 앞두고는 술을 일절 마시지 않는다. 헌혈이 인생에 건강이란 선물을 주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일하는 팀 동료들도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인 안승호, 이부휘, 태충호 프로도 헌혈 100회를 달성해 '명예대장'을 수여 받았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혈액 부족 국가로 헌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증질환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수혈을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헌혈이 줄고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인사

-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공무원노사협력관 연원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 신병대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원전산업정책관 김대자 ◇국장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박재영 ◇과장급 전보 △무역정책과장 이귀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박진서 △세종연구소 파견 권혜진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정훈 △저작권국장 김재현 ◇국장급 전보 및 교육훈련 파견 △대변인 한재혁 △국내훈련(국방대학교) 김일환 △국내훈련(국립외교원) 이수명 △국내훈련(국립외교원) 윤성천 △국내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홍호성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이정미 △운영지원과장

이용신 △뉴미디어소통과장 박미경 △문화산업정책과장 이혜돈 △국체체육과장 이승훈 △융합관광산업과장 김선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 최정현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장 이관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과장 이진숙

부음

- ▲목영호씨 별세, 목혜숙·목혜정·목혜경·목혜영·목준균(전 매일유업 고객지원본부장·전 SBS S 부국장)·목혜진씨 부친상, 최원미(샬러드마스터 올리브시장을)씨 시부상, 이준혁(싱가포르 거주)씨 장인상 = 16일 오전 6시1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장지 천주교영인공원묘원, 02-2227-7556
- ▲김정자씨 별세, 권진혁(화성산업 상무)·권광

혁씨 모친상, 서정화·석정기씨 장모상 = 15일 오전 2시40분, 대구전문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53-965-7301

- ▲이연례씨 별세, 오기택씨 부인상, 오경희·오진희(더글래스피아노원장)·오성희(플러긴스 디자인대표)·오동건(밴쿠버 패밀리레스토랑 대표)·오승희씨 모친상, 최준관(플러긴스디자인 대표)·이경준(현대해상 서귀포지점 근무)·배재만(연휴뉴스 사진부장)씨 장모상 = 16일 오전 11시,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성당, 발인 18일 오전 8시30분, 064-762-3444
- ▲나승권씨 별세, 나금·나경의·나해인·나은경·나경지·나금주씨 부친상, 안경재·이도겸·이재운·류광욱(한스경제 신문제작본부 차장)씨 장인상 = 16일 오전 8시30분,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30분, 02-2631-4422